

“명절 후폭풍 몰려오나”...코로나 다시 확산세

광주·전남 추석 연휴 이동량 증가 확진자 급증 잔디밭 인파 감염자 발생 “방역수칙 준수 절실” 위드 코로나...“시기상조” vs “늦기 전 추진을”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지속되는 가운데 추석 명절 대이동의 여파로 광주·전남을 비롯한 전국적 감염 확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방역당국은 앞서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시점을 11월로 내다봤지만, 추석 연휴를 기점으로 확진자가 계속 늘어난다면 방역 완화 지침에도 변동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23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기준 코로나19 일일 확진자는 광주 37명, 전남 9명이며 누적 확진자는 각각 4,798명, 2,942명이다.

하루 확진자의 절반을 넘어선다는 주춤한 듯했던 외국인 감염이 다시 늘어나고 사우나 등 집단 감염, 기존 확진자 관련 감염도 이어졌다. 추석 연휴로 검사 건수가 줄어든 것을 고려하면 실제 감염자는 이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최근 정례 브리핑을 통해 “11월부터는 본격적으로 단계적 일상 회복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10월 말이 되면

전 국민의 70%가 완전히 접종을 완료가 된다”고 밝혔다.

접종 완료 시점인 10월 말에서 항체 형성을 위한 2주가 지난 11월 중순께부터 방역체계를 점차 완화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단계적 일상 회복에 대한 논의는 좀처럼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스라엘, 영국, 미국 등 백신 접종률이 높은 국가에서 방역을 완화했다가 확진자와 사망자가 급증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방역수칙에 대한 시민의식도 문제다.

추석 연휴 기간 영주체육관과 전남대학교 등의 잔디밭에는 100~200여명의 시민이 삼삼오오 둘러앉아 음식을 먹고 있는 모습이 목격됐다. 대부분 20대 젊은이들로 3~5명씩 모여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 신고가 접수되자 지자체와 경찰이 합동으로 점검에 나섰다. ‘야외 취식 금지’ 등 행정명령이 내려져 있지 않아 강제 해산하지 못하고 계도에 그쳤다.



추석연휴를 마치고 첫 출근한 23일 오후 광주 서구선별진료소에 코로나19 검사를 하려는 시민들이 길게 줄을 서서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김태규 기자

결국, 영주체육관 잔디밭 방문객 중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 방역 당국은 재난안전 문자 메시지를 통해 이들과 같은 시각 영주체육관 야외 잔디밭에 방문한 사람들에게 진단 검사를 권유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시민들 사이에서도 ‘위드 코로나’로 일상을 되찾아야 한다는 목소리와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나뉘고 있다.

서구에 사는 직장인 양모씨(32)는 “방역 수칙이 답답하고 힘들지만 돌파 감염도 발생하는 상황에서 위드 코로나는 아직 이르다고 생각한다”며 “연말까

지는 지금의 확산세가 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불안감을 내비쳤다.

광산구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박모씨(58)는 “백신 접종률이 70%를 넘어 서면 위드 코로나로의 전환이 맞다고 본다”며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당장의 하루 매출이 더 두렵다”고 토로했다.

정부는 단계적 일상회복 시기를 11월로 제시했지만, 10월 역시 확진자 규모가 지금과 비슷하거나 이보다 증가할 경우 거리두기를 완화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행되면 개천 절과 한글날 연휴가 있는 10월 한 달 동안

코로나19 확산 추이와 접종률 목표 달성이 관건인 만큼 국민의 적극적인 접종 참여와 방역 수칙 준수가 절실한 상황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날 기준 광주시 백신 1차 접종률은 70.07%다”며 “일상회복에 있어 백신 접종이 가장 중요한 만큼 광주 시민 모두가 접종과 방역 수칙에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다음 달 1일부터 코로나19 접종을 신청하지 않은 이들을 대상으로 모더나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 가운데 오는 30일까지 사전예약이 진행된다. /김민빈 기자

오늘의 날씨

장성	14~26	흑산도	20~24
담양	15~27	구례	14~28
화순	15~27	곡성	14~27
영광	15~26	완도	17~26
함평	15~27	강진	15~27
무안	16~26	장흥	14~26
영암	15~27	해남	14~26
진도	16~26	고흥	15~26
신안	17~26	보성	13~25

일출 06:22 일몰 18:27
월출 20:19 월몰 09:09

목포	만조 04:06 16:28	여수	만조 10:50 22:55
	간조 09:14 21:30		간조 04:31 16:44

문의 : 광주기상청 지역번호 없이 131

실종 70대 치매노인 ‘가족 품으로’

주민 제보로 발견

추석 연휴 기간 실종된 치매 노인이 주민 제보로 가족 품으로 되돌아갔다.

23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 30분께 광주 북구 두암동에서 70대 남성 치매 노인 A씨가 실종됐다는 부인의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추석 연휴 마지막 날 부인과 함께 뒷밭에 나갔다가, 홀로 이탈해 실종됐다.

경찰은 신고를 받은 즉시 현장에 출동해 주변을 수색했지만, A씨를 찾을 수 없었다.

이에 A씨 가족의 동의를 얻어 사진과 인상착의를 토대로 ‘실종자를 찾는다’는 실종경보 문자를 광주지역에 보

냈다.

A씨가 실종된 지 6시간여 만에 북구 각화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비슷한 인상착의의 노인을 봤다는 주민의 제보가 접수돼 경찰은 오후 8시 30분께 A씨를 무사히 찾았다.

경찰 관계자는 “실종 경보를 통해 목격자를 찾아 치매 노인 실종자를 발견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실종경보 제도를 활용해 실종자를 찾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청은 지난 6월 9일부터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실종자의 정보를 전송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실종경보 문자를 발송하려면 보호자가 동의해야 하고, 아동·장애인·치매 노인을 대상으로 한다. /최환준 기자

암행 경찰관 뜯다...디지털성범죄 수사

아동·청소년 피해 예방...법원 허가로 신분 위장 가능

경찰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성범죄를 수사할 때 신분을 숨기거나 위장할 수 있게 된다.

경찰청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24일부터 시행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경찰은 신분을 밝히지 않고 범죄자에게 접근해 범죄와 관련된 증거·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범죄 혐의점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학생 등으로 신분을 위장해 수사할 수 있다.

경찰은 법원 허가를 받으면 신분 위장을 위해 문서·전자기록 등을 작성·변

경할 수 있다. 위장된 신분을 이용해 계약·거래하거나 성착취물을 소자·판매·광고할 수도 있다.

온라인에서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협오감을 유발하는 대화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하거나 성적 행위를 유인·권유하는 ‘그루밍’ 행위를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위장수사는 지난해 사회를 경악시킨 박사방·n번방 등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계기로 논의가 본격화했다.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 대화방

인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은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유통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42년을 선고받았다.

경찰청은 개정 법률이 올해 3월 공포된 뒤 여성가족부·법무부와 협의해 위장수사에 필요한 시행령을 마련했다.

시행령에는 위장 수사를 할 때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않은 자에게 범의를 유발하지 않아야 하며, 피해 아동·청소년에게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경찰청은 전국 시도 경찰청의 경찰관 중 위장수사관 40명을 선발했다.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 점검단’을 운영해 문제점·보완 사항을 점검하고 위장수사관을 늘리기로 했다. /연합뉴스

목포 아파트서 판사 숨진 채 발견

추석 연휴 기간 목포의 한 아파트에서 현직 판사가 숨진 채 발견됐다.

23일 목포경찰서에 따르면 연휴 마지막 날인 지난 22일 오전 11시께 목포시 옥암동 한 아파트에서 40대 여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소속 판사로 확인됐다.

A씨가 추석 연휴에 고향에 다녀온 뒤 22일부터 연락이 닿지 않자 가족이 집을 찾았다가 쓰러져 있는 A씨를 발견했다.

경찰은 외부 침입 흔적이거나 별다른 이상이 없어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이다. /목포=김동균 기자

아파트 화재로 주민 2명 부상

목포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주민 2명이 다치고 20여명이 대피했다.

23일 0시 23분께 목포시 산정동의 한 아파트 12층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주민 1명이 화상을 입고, 다른 1명은 연기를 흡입해 병원에 이송됐다.

또 주민 수십 명이 한밤중 대피하는 소동이 일어났다.

불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32분만에 꺼졌다.

이 불로 아파트 내부 20㎡가 소실돼 소방 추산 약 2,0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목포=김동균 기자

(주) 금호주택

광주광역시 서구 경열로 17번길 9 거승빌딩
Tel. 062) 382-8879

가족회사 (주)송도건설 / (주)금호에너지 / (주)송도 / (유)송산

함께 여는 행복한 세상!

(주)금호주택이 더 큰 세상을 만들어 갑니다.

임대문의 062) 382-8879

광주사업지

- 동 구 | 지산동, 소태동
- 서 구 | 금호동, 풍암동, 치평동, 농성동
- 남 구 | 주월동
- 북 구 | 신용동, 연제동, 운암동
- 광산구 | 수완동, 신창동, 운남동, 월계동, 산월동, 소촌동, 송정동, 도산동

전국사업지

- 서울특별시 | 잠실동
- 부산광역시 | 광안동
- 제주특별자치도 | 노형동
- 경기도 안성시 | 중리동
- 전남 목포시 | 옥암동
- 전남 영암군 | 삼호읍
- 전남 화순군 | 화순읍
- 전남 담양군 | 대전면
- 전북 완주군 | 이서면